

세정과장의 놀람과 꿈

김 동 완

행정자치부 세정과장

세정과장으로 부임하여 2달도 되지 않은 내가 지방세의 전문지에 수필을 기고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다만 나와 같이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도 전문가들에게는 엉뚱한 데가 있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기권하지 않고 펜을 들기로 하였다.

세정과장으로의 발령은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행복이었다. 어린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사무관으로 충남도청에 근무하다가 금산군수를 마치고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에 올라 온 내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기쁨이었다. 공직의 전반기는 내 고향인 충남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고 공직의 후반기에는 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

발령받고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군수까지 했으니 젊은 나이에 자신감은 가득 차 있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은 또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모르는 것은 별로 없었으나 제대로 아는 것 또한 별로 없다는 것이 나의 자화상이었다. 따라서 나는 중앙부처의 실무책임자로서 제대로 된 과장이 되기 위하여는 무엇인가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무작정 공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공을 정하여 전문화를 추구하는 것이 21세기를 준비하는 자세일 것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다닐 때 석사학위논문으로 지방재정을 주제로 썼으니 그런 방향이 좋겠다 싶었다.

그러나 막상 책을 잡으려니 현직에 밀리는 업무를 마다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 하나 공부가 될 것 같지 않았고 그런 생각은 대략적인 감이라도 잡으려면 교육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중앙공무원의 핵심관리자 과정에 가보기로 했다. 정말 오랫동안 잊었던 이론이나 생각들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다시 나를 엄습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기를 중앙부처로 올라와 1년을 보내고 1996년 초가 되었다. 무엇인가 새해가 되어 가니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 삶 속에서 늘 존경해 오고 있는 은사님을 찾아, “중앙부처 과장으로서의 책임감은 통감하지만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양심의 가책이 앞선다”는 말씀과 함께 “늦기는 했지만 해외에 국외훈련을 가면 어떨까 생각도 해 보는데 나이로 보면 승진에 손해일 것도 같고 더 솔직이는 TOEFL 시험이 자신이 없다”는 상의 말씀을 드렸더니, 은사님께서 “승진의 빠르고 늦음은 큰 일 하려는 사람에게는 문제될 바 없고 문제는 TOEFL 시험이 문제일 텐데, 젊은 사람들도 영어 공부 쉽지는 않은데 10여년 이상 영어공부를 아니하다가 하려면 쉽

지 않을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그래도 해봄 직하다”는 채찍을 같이 해 주셨다. 그 채찍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그 뒤 1년 동안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좀 보려면 목이 끊어질 듯 아픈 <목디스크 현상>이 가장 괴로웠고 두 다리를 책상에 올려 놓고 책을 보는 자세로 나 자신과 싸워야 했다. 외운 단어나 숙어를 돌아서면 잊어 버리는 나이에 도달해 있었고, 사무실 근무환경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 근무로 매우 불규칙적이고 1년 365일 편안한 날이 없이 지내야 했다. 공부한다고 능청도 떨 수 없는 상황근무 순번은 아무리 누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 양해를 구한다 해도 양보하지 않는 삭막함이 엄습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으니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도 운이 좋아 뒤늦은 늦바람이 겨우 합격이 되어 미국에 2년간 국외연수의 기회를 갖을 수 있었다.

미국에서의 공부는 공공재정(public finance)중 지방채(municipal bond)에 집중되었다. 짧은 영어로 공부하려니 소화해 내기가 어려워, “사서 고생한다”는 주위의 충고는 물론이지만, 내 자신이 생각해 보아도 그렇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이도 나이인 만큼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 교분을 나누며 미국생활을 하여도 아까운 시간인데, 강의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이해가 잘 안되는 reading material을 도서관에 처박혀 읽으려 했고, 그러니 그런 충고를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 나름대로는 다소 엉뚱한 사명감에 집착해 있었다. 남의 공직기간중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통일이라는 생각과 만일 이 시대 공직자가 통일의 문제를 소홀히 하여 역사의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감이 나를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지방채와 통일이 무슨 상관이나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통일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독일이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더 고통스럽게 겪을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 생활환경의 격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영호남의 지역감정에 또하나의 지역감정이 가미되는 삼국시대가 부활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 물론 나 혼자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문제의 해결방법을 지방채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이 갖고 있는 국유토지와 국내외의 민간자금

을 지방채로 조달하여 북한지역의 기초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전략을 꾸준히 추구해 나간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나 나름대로의 논리가 존재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낸 미국생활을 뒤로 하고 귀국하였을 때, 내 조국은 IMF의 후유증과 이에 파생된 정부조직개편에 휩싸여 나를 반길 수 없는 형편이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소화를 다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배운 것이니, 보직대기 기간이 잘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책이 뱃편으로 배송되어 오지 않은 기간동안, 집 마련과 아이들의 편입학을 위하여 1달여를 보내고 나니 막상 책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려는 심리적 갈등은 나를 엄습했지만, 일본어라도 배워야겠다는 제정신을 되찾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8개월간의 방황 끝에 받은 세정과장의 보직은 너무 감사했고 4~5년전 갓었던 꿈이 이제 실현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절로 긴장이 되었다. 의욕도 나를 부추기었다. 미국 인디애나 행정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세입분야는 담당교수가 휴식년을 러시아에서 보내고 있어 공부할 수가 없었던 분야이니 더욱

그랬다. 천우신조라는 말이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세정과장을 받아 하루하루 지나다보니, 나에게 닥쳐오는 일 마다 나를 무척이나 놀라게 했다. 쓸만한 일이다 싶어 열심히 찾아 가보면 그것은 세제과 업무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과세권자가 아니므로 ‘행정자치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세정과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러한 당혹스러운 내 마음을 다소 가다듬어준 것은 강원도에서 주최한 지방세관련 세미나이었다. 세미나에서 이야기되고 토론되는 내용을 듣고 있자 하니, ‘우리 국민들은 세제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고 법태두리 내에서의 운용에 대하여도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서 “세정과는 질의회신만 하면 그 소임을 다 하는 것입니까?”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가져오는 것이 질의회신 결제서류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항상 전화통을 잡고 무엇인가 통화하는 직원들의 근무자세가 나에게서 못 마땅했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세무전문요원교육에 가서도 그러한 세정과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 및

시도의 세무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하지 않고 무조건 질의회신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민원인에게 질의회신하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어 세정과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해 보기도 했다. 가는 곳, 머무는 시간마다 공개재판식으로 세정과의 업무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날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 기울이게 되었다. 이것이 사건이었다. 직원들이 이 질의회신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관들에게 누가 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세정과 직원들의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술깨는 소리를 나는 무조건 들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시간은 6시부터 시작된 것이 밤 11시가 지나도 끝날줄을 몰랐다. 더욱이 직속 상관인 과장마저 질의회신에 얽매이는 자신들을 질타하고 나서자 정말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나는 그날 정말 반성을 많이 했다.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요, 듣고 또 들어도 시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세정과장으로 보직 받은 지 2개월이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깨달은 교훈은 지방세 업무는 민주주의의 역사 만큼이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가 곳곳에 내재되어 있어 선불

리 안다고 비판하고 질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오래 근무하거나 정통한 사람에게 충분히 물어 보고 그런 연후에 법논리로 훗일을 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세정과장의 놀람은 이제 꿈을 갖게 되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겠다는 세금문제가 국민들의 가슴에 아픔으로 변하여 괴롭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꿈이 그 하나이다. 구한말 국권상실의 역사가 되었던, 아니면 영국의 명예혁명이 되었던 세금문제가 사람을 괴롭혀 참을 수 없는 지경에서 비롯된 역사적 교훈들이었다. 따라서 세정과장으로서 이루고 싶어 하는 꿈 중에 하나는 내 업무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꿈을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째로, 세정과 직원들은 다른 부서와는 달리 강의도 많고 원고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일반행정가로 流轉하던 나에게 정말 부러운 모습으로 비쳐보였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인사에서 소외되는 현실속에서 전문성을 자조하고 있어 더욱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21세기 세계화를 맞이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누가 전문화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는 ‘자신을 제외하고...’라고 답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그런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욱 정진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선진사회를 맞이하는 꿈을 가져본다.

셋째로, 세정의 전산화에 대한 꿈을 꾸어 본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했는지 안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法院의 준엄한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이때 일로 송부된 납세고지서가 즉각 송달되었다고 과세관청에 이메일로 통보되고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이메일을 열어보면 그 사실이 또 다시 과세관청에 이메일로 통보되어 더 이상 송달여부로 재판이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기를 바라는 꿈이며, 세금을 내기 위하여 은행에 나가는 일 없이 인터넷으로 내는 사회를 바라는 꿈이 또 다른 하나요, 그 납부된 세금에 과오납이 있으면 즉각 이 메일로 통보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이체되는 사회에 대한 꿈이 나의 전산화에 대한 꿈이다. 아울러 국민이 지방세에 대하여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에서 지난날의 질의회신을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고 그에 없는 내용이라면 담당공무원의 이메일로 연결되어 즉시원히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세정이 되기를 바라는 꿈 또한 나에게 있다. ☺